



ST. MICHAEL ROMAN CATHOLIC CHURCH

성 미카엘 천주교회

19 E Central Blvd.,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 944-1061 Fax. (201) 947-1798 stmichaelkorean@gmail.com

주임신부: 조민현 요셉 (201) 944-1061
 보좌신부: 신용문 야고보 (201) 944-1061
 부 제: 윤상진 스테파노 (201) 988-7157
 전교수녀: 정미숙 금주벨베뚜아 (551) 237-0037
 사목회장: 이병일 라파엘 (201) 838-2920
 연 령 화: 안용진 바오로 (201) 753-1206
 사 무 실: 월-금 9:00A-05:00P (201) 944-1061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성 미카엘 성당’은, 여러 민족들과 다문화가 어우러져 있는 공동체로서, 열린 마음으로 서로 다른 문화를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의 다양한 경험이 모여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우리 모두 끊임없는 열정, 새로운 사고와 창의력으로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도록 언제나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로서, 현재 기존의 교우들뿐만 아니라 새 식구가 된 새 교우들도 함께 아우르고 감싸 안는 ‘만인의 사랑의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 지역과 교회의 사명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 미사 안내 ▷

◁ 성사 및 교리 ▷

주일미사	토 요 일 오후 5:30(영어 - 주일 저녁미사)
	주 일 오전 7:30(영어) 9:30(한국어) 11:30(영어)
	오후 1:30(스페인어) 5:30(한국어)
평일미사	영 어 매주 월-금 오전 7:30 11:00 토 오전 9:00
	한 국 어 매주 화 오후 7:30
	스페인어 매주 수 오후 8:00
성 시 간	매주 목 오후 8:00(영어·한국어·스페인어)

예비신자교리

매주 주일 오전 10:30

병 자 성 사

위급할 때

고 해 성 사

미사 전후

유 아 세 례

매월 셋째 주일 미사(사무실 예약 바람)

혼 인 성 사

1년 전 예약(영어, 한국어 가능)

◁ 이번 주 전례 안내 ▷

◁ 신앙고백 ▷

입 당 송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듯이, 하느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예수님과 함께 데려가시리라.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리라. * 대영광송 없음
제1 독서	지혜서 3장 1-9
화 답 송	시편 23:1-3, 4, 5, 6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려라.
제2 독서	로마서 6장 3-9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과, 와서, 세상 창조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 알렐루야.
복 음	요한복음 6장 37-40 * 강론 후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송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사 파견 후) '성 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에서 저희를 지켜주소서.

사탄의 악과 간계에서 저희를 보호해 주소서.

간절히 청하오니,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탄을 쫓아버리소서.

천상 군대의 영도자 미카엘 대천사님, 영혼들을 멸망시키려고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탄과 모든 악령을

하느님의 힘으로 지옥으로 쫓아버리소서. 아멘.

◁ 말씀의 식탁 ▷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묵상

가을이 깊어지는 시기에 위령성월(慰靈聖月)을 맞으면서, 하느님 앞에서 숙연하게 우리의 삶과 죽음의 여정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지혜 3,1-3)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우리의 눈에는, 더욱 커 갈 그리움 탓에 그들의 부재가 분명 슬픔과 고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하시니, 이는 숙명적으로 이별의 아픔을 견어내어야만 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로마 6,4,9) 세례를 통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문이며, 사랑하는 이들은 그 문을 지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희망이며,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코 지상의 여정으로 삶의 의미가 단절되지 않도록, 현재를 아름답게 가꿀 지혜와 더불어 저 너머를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자비로움에 기인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이다.”(요한 6,37,40)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영원한 안식에 대한 가장 굳건한 보증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통해, 슬픔 그대로의 슬픔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고, 다가올 약속된 생명과 평화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우리에게도 희망과 사랑의 삶을 이어가라고 현재의 여정이 우리 삶을 주님의 길로 초대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 기도 지향 안내

- 레오 14세 교황님, 교회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 11월 2일 오전 9:30

• (연) 프란치스코 교황님, 기일 맞는 홍금조 세실리아, 전복염 스테파노, 박 마리아, 배완길 베드로, 김영옥 수산나, 하승호 프란체스토, 오진희 바울라, 최무철 토마스, 정명모 요셉, 강혜봉 굴룸바, 오펜한 바오로, 정미숙 실비아, 최영자 테레사, 오실광 베드로, 임상열 벨라도, 류배영 요한, 박민철 요셉, 한주민 미카엘라 기억되는 모든 연령

• (생) 생일 맞는 이고은, 이양숙 율리안나, 안희상 가정, 이유리 가정, 조민현 요셉 신부님, 신용문 야고보 신부님, 스탠리 로

보 신부님, 정미숙 금주 벨베뚜아 수녀님, 윤상진 스테파노 부제님, 모든 사제와 수도자, 우리 모두

- 11월 2일 주일 오후 5:30

• (연) 정병배 알렉산델, 김동갑 데레사, 신인태 베드로 기억되는 모든 연령
• (생) 정지연 안나, 박미지 라파엘라, 서병수 발트로메오, 이세호 요한, 모든 교회 봉사자, 조민현 요셉 신부님, 신용문 야고보 신부님, 정미숙 금주 벨베뚜아 수녀님, 윤상진 스테파노 부제님, 모든 사제와 수도자들

- 기도 지향 예물은, 홈리스 등 이웃 위한 “기금 구좌”에 예치, 뜻깊게 쓰입니다./주일 지향은 평일에도 올려집니다.

▶ 매주 지향을 두며 봉헌드리는 수 오후 7:00 목주기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장소 - 통상 야외 성모상)

▶ 오늘은 교구 분납금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2025년 Annual Appeal - 교우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으로 완납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전대사 수여 교령 알림(2026/01/06 까지) - 누우침, 죄 멀리함, 애덕 실천, 참회 성사, 영성체, 교황님 지향 기도로 은총 받을 수 있습니다: 게시물/동영상 참조

Faith Formation

▶ CCD(주일 학교) 프로그램 안내

- 교육: 매주 주일 10:15 노틀담 아카데미

- 대상: 1학년~8학년 학생

- 추가 신청 양식: 본당사무실 문의

▶ Youth Group - 매월 4주

- 대상: 8학년~12학년/교육: 영어 진행

- 일시: 11/23 오후 3:00-4:00 /장소: 과달루페 방

▶ 월간(月刊) 청년(Cenacolo) - 매월 3주

- 일시: 11/16 오후 6:45-8:00 / 장소: 과달루페 방

▶ 11/2(일)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미사

- 통상적으로 전례력으로는 ‘주일’이 다른 모든 축일이나 기념일에 선행하나, 금주는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지향을 특수하게 적용합니다.

- 독서, 기도를 포함한 모든 전례 중에 위 지향을 기억합니다.

- 개별 지향 받지 않습니다.

- 위령미사 예물은 사제들에게 전달되어, 봉헌하신 분들의 지향에 따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드릴 것입니다.

▶ 11월 구역장 월례회의

- 일시: 11/2(일) 오후 1 / 과달루페 방

▶ 레오니아 시니어 아파트 신청서 받습니다.

- 마감: 11/3(월) 오후 2:00(본당 사무실에 신청서 문의)

▶ 11월 치유 찬양의 밤 (성령 치유 안수)

"세상을 떠난 모든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일시: 11/8(토) 오후 7- 오후 9:30

- 장소: 성 마이클 대성당

19 E Central Blvd, Palisades Park, NJ 07650

▶ 2025년 성 마이클 성당 견진성사 안내

- 일시: 11/16(일) 11:30 미사/교리: ~ 매주 9:30 미사 후/
신청 및 문의: 윤 스테파노 부제 201-988-7157

▶ 사목회의 - 일시: 11/21(금) 오후 7:00

▶ 2025 하반기 온라인(ZOOM) 신앙강좌

- 강사: 장재명 파트리치오 신부(부산 가톨릭센터 부관장)

- 일시: 11/28 매주 금 오후 8:00-9:45(동부표준시)

+ 30분 나눔- 수강료: \$30

- 문의: 김경림 안나 201-414-6404/ kkl2973@msn.com

이순여 소화데레사

847-660-4641/ teresayi60@gmail.com

▶ 본당 M.E 부부 모임 - 일시: 11/29(토) 오후 6:30

▶ 본당 대림 특강 - 일시: 12/16(화) (추후 상세 안내)

▶ 2025 성탄판공성사 - 일시: 12/17(수) 오후 7:00(성전)

▶ 연령회 연말 송년모임 안내

- 일시: 12/21(일) 오후 3:00-6:00/장소: 카페테리아
- 대상: 전 교우/주관: 연령회/후원: 사목회
- 회비: 연령회원(무료)/비회원(\$20)/신청마감: 11/30(목)
- 후원금 및 물품 도네이션 받습니다
- 정성스러운 식사와 다양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초, 제병, 포도주 봉헌 신청

- 사랑하는 이(생존, 선종)를 기리는 방법 중 하나로, 주일 제대 초, 제병, 포도주 봉헌 중 한 가지 또는 모두 봉헌 가능합니다./ 초: \$15, 제병: \$25, 포도주: \$25

▶ 인사 문화 만들기 + 새 교우분 환영합니다.

- 주일 9:30 미사 후 친교에 함께 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 친교 기부- 주일 9:30 미사 후 친교 나누세요.

공동체에 활기 더할 기부 받습니다./ 문의: 본당 사무실

▶ 주님 계신 성전 안에선 꼭 '정숙'하여 주श्य요!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10/26, 단위: \$)

미사시간		1차	2차	교무금
토요특전	5:30 PM	168		970
주 일	7:30 AM	561		
	9:30 AM	1,759		
	11:30 AM	897		
	1:30 PM	1,146		
	5:30 PM	510		
계		\$5,041		\$6,011

- 교무금: 정정문 베드로(11), 황중하 안토니오(10-12), 김종심 글라라(11-12), 김중성 바오로(11-12), 공영남 베로니카(6-9), 정수영 필립보(10), 김선미 켄마(10), 지용철 요한(11)

- 감사헌금: 국예성 안젤라

- 도네이션: shoprite card 최준환 베드로 강주리 주리아

Saint Michael Church

▶ 성 미카엘 성당 QR코드 안내

- 휴대전화 카메라로 QR 코드 비추기
만 하면 쉽게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다. 후원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 주보 광고 갱신/시작

- 광고비: \$250, \$500, \$1,000(1년 단위)/문의: 본당사무실

◁ 1분 교리 ▷

● 성당 제단의 사용?

- 일차적으로 성당은 거룩한 공간으로 성찬례를 거행하고 전례를 거행하는 장소로만 사용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만 세속적인 이유가 아닌 사목적 이유로 성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곧 신자들의 영적인 선익을 이유로 다른 사용하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대와 감실을 비우고 제단에 상을 차려 잔치를 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일이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거룩한 공간을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칫 하느님께 봉헌된 공간의 의미를 망가트릴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거룩한 것을 형식적인 것에 머물게 할 수 있으므로 성전의 사용은 본래의 거룩한 분위기를 해하지 않는 최대한의 장치를 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출처 - 전례학회 답변 + 자문)